

주제 해설



복음 장사

한 신학교 교수는 옛날 약장수가 시골 장터에서 구수한 입담으로 사람들에게 약을 팔듯,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결신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 '복음 장사'라고 표현했다. 약장수가 온갖 미사여구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것처럼, 오늘날 복음도 그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로 포장되어 소개되고 있다. 마치 믿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인생의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복음인 양 전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을 교회에 초대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둔 결과,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소홀해지고 말았다.

싸구려 복음

복음 장사는 결국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되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전해져야 한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급급해 복음이 갖고 있는 진리의 중함을 너무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가 싸구려로 전락해버렸다. 사람들은 싸구려 복음으로 인

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신앙 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복음을 싸구려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그 복음에 자신의 인생과 열정을 투자하지 않는다.

복음 장사로 인해 나타난 현상

복음은 자신과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바꾼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은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제공한다. 즉, 복음은 사람들의 세계관에 변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분명하지 못한 복음 소개와 결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바꾸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 깨달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병이 낫고 경제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이런 복음 장사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갈팡질팡이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소원이 응답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삶에 나타나면 그들은 활발한 신앙 생활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그들의 신앙은 거품처럼 사라진다.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실체 없는 거품과 같다.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한국에 유입됐다. 사람들은 발열과 기침을 동반한 증상 때문에 외부 활동을 자제했고, 교회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우연한 기회에 담임 목회자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다. 그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에 몇 차례 빠진 성도들이,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지만, 약 10퍼센트의 성도가 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몇 번의 예배 불참이 결국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분명한 복음 소개의 필요

복음의 본질과 그 의미가 왜곡된 이 시대에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분명한 복음 소개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도는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래 전도는 말과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삶도 변화되어야 한다. 분명하게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목적을 바로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신앙의 건강한 성장은 분명한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초가 단단해야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듯이,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견고하게 신앙이 성장해갈 수 있다. 믿음의 출발은 복음의 확신이기 때문이다.

복음이란?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선포하셨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어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다. 즉, 사도들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강조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점이 소개되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 복음은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 이해나 느낌이 아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한다. 회개는 지식적 반응이 아니다. 회개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고, 그것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참된 복음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한다. 복음을 깨

달은 후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with),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for)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 우상, 쾌락 문화, 그리고 무신 문화로 둘러싸여 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잘 살고, 즐기는 것이 모두의 관심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 장사의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어린이들에게 그려주고자 한다.

바르게 믿어요 (부제: 복음과 구원받는 믿음)

• 중심 성경 구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1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창 1-2장, 6장)을 통해,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지니신 두 가지 속성, 즉 ‘사랑’과 ‘공의’에 대해 배울 것이다. 창조 과정에서 드러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 배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다짐하게 될 것이다.

2과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창 3장)을 통해, 어린이들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배울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만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졌다. 어린이들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것이다.

3과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요 1장)을 통해, 어린이들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 배울 것이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배울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배우게 될 것이다.

4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엡 2장)을 통해, 어린이들은 1과에서 3과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선물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배울 것이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선명한 복음과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복음 전도는 말뿐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한다고 가르칠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다음세대가 세워지기를 소원한다.

고종율 목사



파이디온선교회 대표



